

2026년 5월 6일 제 52호

연구위원 오유진
연구위원 김종현
연구위원 이예린

HIF 월간 산업 이슈(5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음식료품 식품 산업, 유가 상승에 따른 연쇄 충격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

- 중동전쟁 발고환을 및 유가 변동성 확대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물류 리스크 심화로 중동향 식품 수출이 감소하는 등 식품업의 피해가 우려
-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상승이 석유화학 기반의 포장재 수급 불안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포장재 대체가능성에 따라 상품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자동차 관세와 중동리스크에 짓눌린 자동차 업계

- 현대차·기아의 '26년 1Q 매출은 친환경차 판매에 힘입어 증가했으나 관세와 중동전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성장성과 수익성 간 괴리 지속
- 이란전쟁은 중동지역 판매 감소 등 직접 충격과 함께 물류/공급망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고유가 장기화 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체 차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조선 조선업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 AI 산업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속 기존 육상 DC의 문제(부지 확보, 냉각 효율 등)가 개선된 '부유식 데이터센터(FDC)'가 조선사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
- FDC는 고부가가치 첨단 IT 인프라로, 국내외 조선사는 빅테크 및 DC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FDC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중장기 사업구조 재편 및 수익성 제고를 추진

산업 이슈

음식료품

식품 산업, 유가 상승에 따른 연쇄 충격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

자동차

관세와 중동 리스크에 짓눌린 자동차 업계

조선

조선업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C10-11. 음식료품

식품 산업, 유가 상승에 따른 연쇄 충격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환율과 유가 변동성 확대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봉쇄로 물류 리스크가 심화되며 중동向 식품 수출이 감소하는 등 식품업의 피해가 우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석유화학 기반의 포장재 수급 불안으로 확산되며,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 중동 분쟁 여파로 식품산업의 원가 압박이 확대되며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제품 특성상 포장재 대체가 어려운 냉동식품 및 간편식 등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될 전망.

■ 유가 상승 및 물류 리스크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식품 업계의 피해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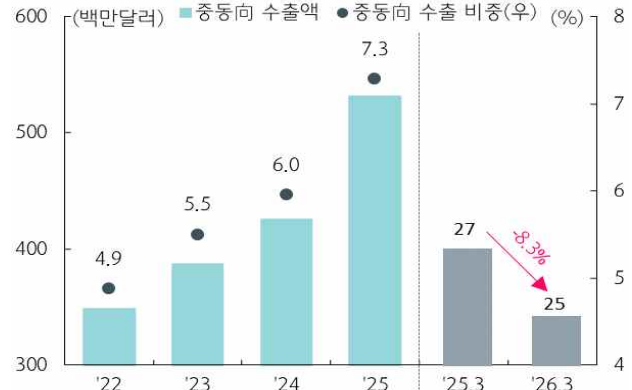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환율과 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제 곡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 산업의 원가 압박이 확대
 - 유가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 우려, 에탄올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
 - '26년 4월 소맥 가격은 연초 대비 22.7%, 대두 가격은 14.3%, 옥수수 가격은 5.3% 증가
- 또한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해상운임·보험료가 평시 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항로 우회에 따른 운송 기간이 2~3주 이상 증가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물류 리스크가 심화
- 특히 식품업계는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등 중동 시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으나, 전쟁 여파로 '26년 3월 중동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8.3% 감소하는 등 수출 시장도 타격
 - 중동은 식품 수출 비중(7.3%)이 크지 않으나, '2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4.8%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25년 대륙별 수출 증가율: 아시아 2.1%, 유럽 11.3%, 북미 12.1%)

그림1 | 소맥 가격 및 유가 추이



자료 : Bloomber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2 | 중동向 식품 수출액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O 기준

■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포장재 수급 차질로 식품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기반의 비닐, 필름, PET 등 포장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성도 초래하며 식품 산업의 포장재 조달 원가 부담이 확대
- 포장재는 팜유, 곡물 등의 주요 원재료와 달리 단기 계약 비중이 높아 유가 및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식품 산업 구매 원가에 전가되는 속도가 빠른 편
 - 나프타 쇼크로 포장재의 가격이 평균 20~30% 인상된 가운데, 식품 산업은 영업이익률이 4% 내외로 낮은 편으로 포장재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수익성에 크게 영향
- 포장재 수급 유동성이 낮아지며 식품 산업의 재고 관리 리스크가 가중되고 기업별 포장재 조달 및 재고 상황에 따라 제품 생산·출하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 롯데웰푸드, 동서식품은 5월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등 한국식품산업협회 포함 13개 단체에 따르면 일부 포장재 재고가 2주분 내외로 급감하며 주요 포장재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
 - 기존 설비의 호환성과 식품 안전성 등의 문제로 단기간 내 대체 포장재로의 전환도 어려움

■ 주요 상품 포장재 원가 비중 및 대체가능성에 따라 기업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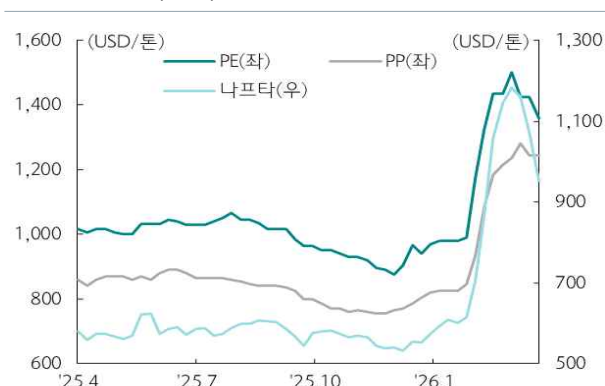
- 고회율과 포장재 수급 차질 등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 안정화 기조로 가격 인상이 제한되며 식품 산업의 2분기 실적 둔화가 우려
 - 식품 산업은 평균적으로 포장재가 전체 제품 원가의 10~15%를 차지하는 가운데, 라면은 포장재가 20~25%를 차지하는 등 제품별로 원가 비중에 편차가 존재
- 정부는 식품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원산지 표시 규제를 유예하고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 포장재 대체가능성에 따라 상품별 영향이 차별화되며 다층 구조의 복합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대체가 어려운 냉동식품 및 간편식 제조 기업의 경우 원가 부담 확대가 예상
 -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해 포장재 소재 전환이 필요하나, 당장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며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반 

그림3 | 나프타, PP, PE 가격 추이



자료 : Korea PDS

표1 | 식품산업의 석유화학 기반 포장재 소재 전환 동향

기업	주요 내용
CJ제일제당	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석유계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 식품 포장에 적용
오리온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플렉소 인쇄 설비 도입을 통해 잉크 및 유기용제 사용량 절감
오뚜기	플렉소 인쇄를 전제품 확대 적용하고 묽음 포장재를 재생 플라스틱 필름으로 교체
롯데웰푸드	주력 제품의 플라스틱 완충재를 종이 재질로 변경
풀무원	바이오 페트·수성 코팅 종이 포장재 적용 제품군 확대

자료 : 언론보도 종합

C30. 자동차

관세와 중동리스크에 짓눌린 자동차 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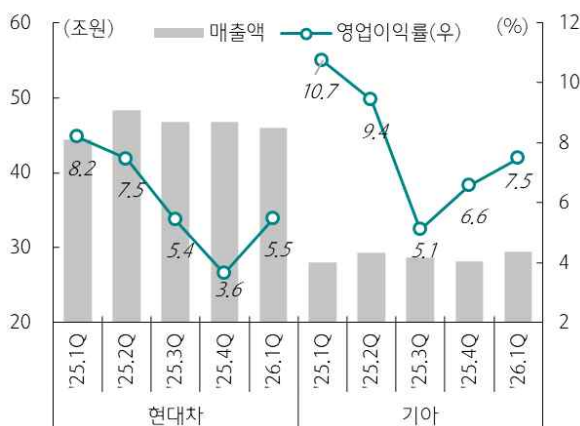
연구위원 오유진

※ Summary :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현대차·기아의 '26년 1분기 매출액은 상승했으나, 관세와 이란 전쟁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함. 이란 전쟁은 중동지역 차량 판매 감소 등 직접적인 충격과 함께 사우디 신규 공장 건설계획 차질, 알루미늄 등의 공급망 불안 요소를 야기하고 있음. 전쟁 발발 후 고유가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체 차량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요 기업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 중심 친환경차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화 및 물류 리스크 완화를 추진 중

■ 분기 최대 매출에도 관세와 비용 부담으로 주요 완성차 기업의 수익성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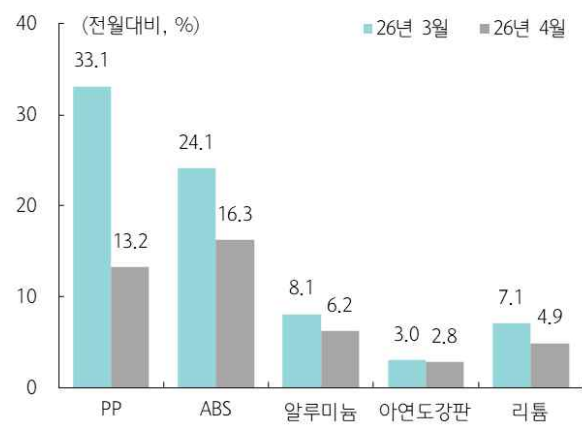
- 현대차·기아의 '26년 1분기 합산 매출액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4.2% 증가한 75조 4,408억원을 기록
 -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2%, 33.1% 증가
- 반면,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미국 관세 부담,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로 인한 판매보증 충당부채¹⁾ 증가 등으로 28.9%(YoY) 감소
 - 1분기 양사 합산 관세 비용은 1조 6,150억원에 달하며, 판매보증 충당부채 증가분은 6,900억원을 기록
- 전쟁 및 고유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북미·유럽 내 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그림4 | 현대차·기아의 분기별 영업실적



자료 : Value Search, 각 사 발표

그림5 | 자동차용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



주 : 4월 실적은 1~27일까지의 평균 기준
 자료 : KoreaPDS

1) 판매보증 충당부채: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증 관련 비용을 미리 마련해놓는 것으로 외화기준으로 설정되어 회계에 반영

■ 전쟁으로 중동지역 판매 감소 및 사우디 신규 공장 차질, 물류/공급망 불안 등이 우려

- 해상 물류 문제로 '26년 3월 한국의 중동向 신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7% 감소했으며, 현대차·기아의 '26년 1분기 중동지역 판매량도 30% 내외 감소
 - 현대차·기아의 전체 판매 중 중동 비중은 5~6%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중동으로 수출
- 물류 지연 및 비용 상승 등 부품 운반 리스크가 커지며 현대차와 KG모빌리티가 사우디에 추진하고 있는 생산시설 건설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
 - KG모빌리티는 사우디 반조립 공장의 가동시점을 올해 6월말에서 8월말로 연기했으며, 현대차의 사우디 반조립 공장의 생산 개시도 올해 4분기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중동사태로 당장 생산차질을 빚는 국내 車 기업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중동산 알루미늄 부족으로 도요타, 닛산, 덴소 등 주요 완성차·부품사들이 생산 감축에 돌입
 - 일본 기업들은 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용 도료 및 유기용제, 내장재용 플라스틱 등의 부족을 우려
- S&P에서는 일본과 함께 한국도 알루미늄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국가라고 지목했으며, 현대차그룹은 非중동권 알루미늄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産 조달을 추진 중

■ 고유가에 따른 전기차 판매 증가 속 기업들은 비용 효율화와 물류 리스크 완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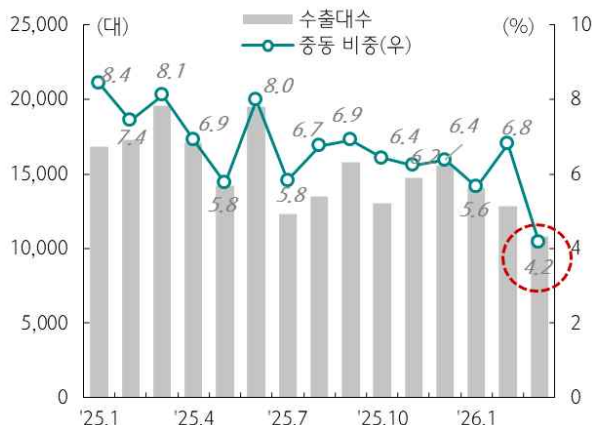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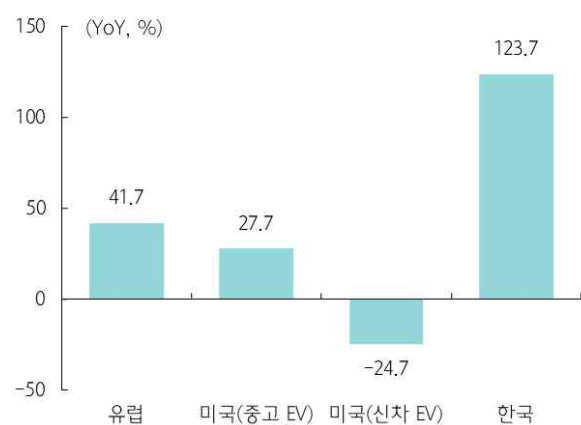
- 전쟁 이후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유류비 부담이 낮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물가 부담 및 구매력 저하로 전체 차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
 - '26년 3월 유럽 전기차 등록대수는 41.7%(YoY) 증가, 美 중고 전기차 판매는 27.7%(YoY) 상승
- 현대차·기아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중심 친환경차 판매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원가 절감 아이템 개발, 예산계획 재검토 등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
- 관세 장벽에 더해 비용 및 운송기간 관련 물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주요 기업들은 장거리 해상 운송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생산과 공급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환을 모색 

그림6 | 중동지역 월별 완성차 수출동향 및 비중



자료 : KAMA

그림7 | '26년 3월 주요국 전기차(BEV) 판매 증가율



자료 : ACEA, Cox Automotive, KAMA

C31. 조선업

조선업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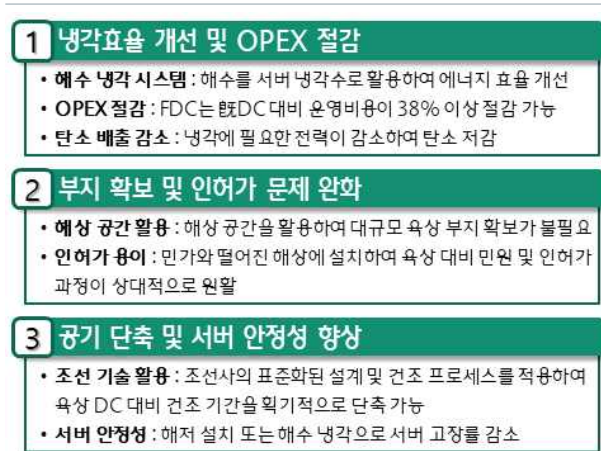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글로벌 AI 산업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육상 데이터센터의 부지 확보, 인허가, 냉각 등의 문제가 완화된 ‘부유식 데이터센터(FDC)’가 부상. FDC는 선체 설계, 해상 안전 등이 중요하므로 FDC 사업을 위해서는 조선사의 역량이 필수적. 이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중심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FDC 사업 진출을 추진. FDC는 첨단 IT 인프라 사업으로 선박 건조 대비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 국내외 조선사들이 FDC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조선업 시장 변동성 완화와 수익성 개선도 기대

■ AI發 DC 수요 증가 속 ‘부유식 데이터센터(FDC)’가 조선사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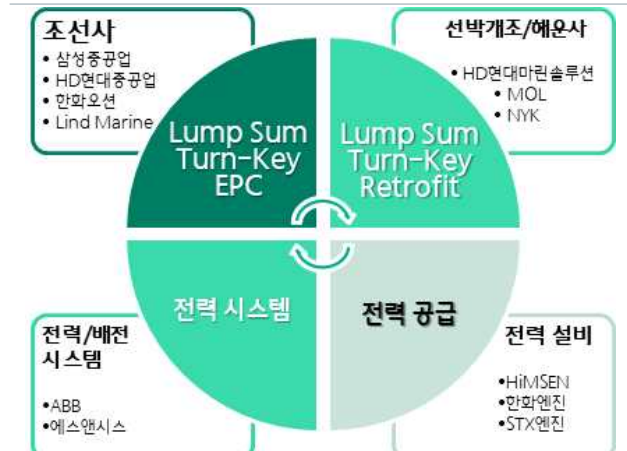
- 부유식 데이터 센터(FDC, Floating Data Center)는 바지선·선박·해상구조물과 DC가 결합한 것으로, AI 관련 전력 수요 증가 속 육상 DC 대비 부지·인허가 제약이 적고, 냉각 효율이 높으며 공기가 짧아 유망 사업 모델로 주목
 - FDC는 육상DC 대비 ①전력 확보 속도 향상, ②냉각 효율 개선, ③부지 확장성, ④탄소·소음·폐열 규제 회피, ⑤모듈 이동·철거 용이 등의 뚜렷한 이점을 보임
 - 단, 해상 안정성과 해상(항만법) 규제, 해상 시공비 증가, 운영 접근성 등의 단점도 고려할 필요
- FDC는 선체 설계, 계류 안정성, 전력·냉각 시스템 통합, 선급 인증 등 선박 건조 관련 역량이 중요하므로 FDC 사업을 위해서는 조선사의 해상 인프라 설계·건조 능력이 필요
- 국내외 조선사는 FDC를 ‘해상 데이터 인프라 EPC 사업’으로 인식하며 FDC 사업 진출을 통해 시장 변동성이 높은 선박 건조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시도

그림8 |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의 이점



자료 : BIS Research, 하나금융연구소

그림9 |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사업 참여 주체



자료 :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연구소

■ 조선사의 FDC 사업 형태는 중고선·해상구조물 개조형, FDC 신규 착공형 등으로 구분

- 현재 국내외 조선사들의 FDC 사업 참여 방식은 DC 사업자와 연계하여 ①조선소가 바지·선박·부유식 구조물 개조를 수행, ②조선사가 DC 사업자와 결합하여 신규 착공 등으로 나타남
- (개조 사례①) 美 Lind Marine은 '69년에 건조된 대형 바지선을 6.5MW 규모의 FDC로 개조하는 Nautilus Data Technologies社の 'Eli M' 프로젝트를 설계 및 건조('20)
- (개조 사례②) 日 주요 해운사 MOL과 NYK 등은 자사 중고선과 해상플랫폼을 FDC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국 조선소에 FDC 개조를 발주할 예정
- (착공 사례) 싱가포르 Keppel O&M은 DC 운영에 최적화된 '전용 부유식 모듈형 플랫폼'을 새롭게 설계하여 착공('26)하였으며 해상에서 LNG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결합
- Keppel은 프로젝트 기술력 제고를 위해 美 Nautilus Data Technologies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23)

■ 국내외 조선사는 FDC 사업을 통해 IT 인프라 기업으로 변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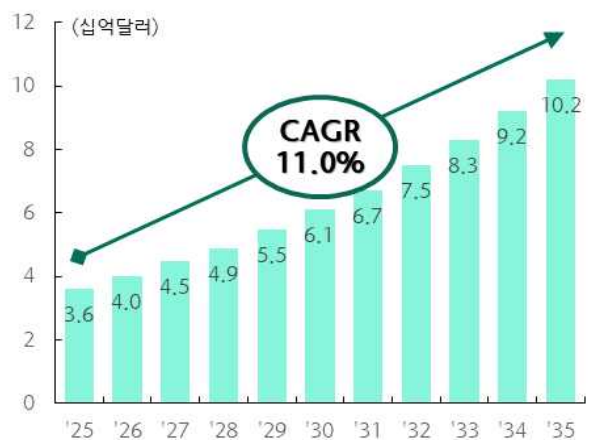
-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 DC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FDC 시장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조선사들은 빅테크와의 FDC 사업을 확대하며 IT 인프라 기업으로 변화를 모색
- 글로벌 FDC 시장규모는 향후 10년간 CAGR 11.0%를 기록하며 \$36억('25)에서 \$102억('35)로 성장할 전망
- 국내의 경우 삼성중공업은 FDC 개발사, HD현대·한화오션은 DC 전력 인프라 공급사로 포지셔닝하며 빅테크·DC사업자 등과 MOU,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FDC 사업 참여를 추진
- 삼성중공업은 기존 선박 개조가 아닌 50MW급 'DC 전용 부유식 플랫폼'을 독자 모델로 개발하여 글로벌 선급 기관(美 ABS)의 인증을 취득
- FDC 사업은 첨단 IT 인프라 건조 및 SI 사업으로, 선박 건조 대비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조선사의 FDC 사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 

표2 | 국내외 조선·해운사의 FDC 사업 동향

조선사	FDC 및 발전설비 등 관련 사업 사례
해외	美 Lind Marine 既대형 바지선을 6.5MW 규모의 FDC로 개조하는 Nautilus社の 프로젝트를 설계·건조 수행
	日 NYK NYK 등은 요코하마부두 내 해상구조물에 DC, 태양광, ESS 연계 실증사업 시행
	日 MOL MOL과 Hitachi는 중고선의 선체·전력·공조 인프라를 활용한 중고선 개조형 FDC 사업 추진
국내	삼성중공업 삼성重·삼성物, OpenAI와 FDC 공동개발 논의, 美 DC 개발사 무스터리안과 FDC 개발 MOU 체결
	HD현대 美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에 HiMSEN*의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공급계약을 체결
	한화오션 한화엔진*은 DC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중단했던 발전용 증속엔진 생산 재개 추진

주: HiMSEN과 한화엔진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선박용 엔진 제조 자회사
자료: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0 | 글로벌 FDC 시장규모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